



산을 닦아가는 동호회, '사니조아'

일 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만큼 산은 모든 이를 여유로움이라는 미덕으로 품는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산을 닦아간다'고 했던가. 분당의 IDC(Internet Data Center)를 소유하고 있는 글로벌 호스팅 전문업체 '호스트웨이코리아'의 산악동호회 '사니조아' 회원들 또한 산을 닦아가고 있다.

2004년 9월, 회사의 지원을 받아 결성된 '사니조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와 끈끈한 정이 한껏 묻어났다. 현재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사니조아'는 한 달에 한 번 정기 모임을 가지고 있다. 주로 경기, 강원지역의 유명산들을 다니는 이들의 첫 산행 스토리는 가히 눈물 없는 들을 수 없다.

동호회 결성 후 첫 산행의 부푼 꿈을 안고 속리산 등정을 감행한 이들. 모두 의기양양하게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산 중반을 넘어서자 이들의 발은 무쇠조각을 달아놓은 것처럼 땅에서 떼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다. 더구나 초보 산악인들인 탓에 비상식량도 준비하지 않았던 것. 다른 등산객들이 과일이나 과자로 요기하는 것을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고만 있었다고.

"뭔가 결단이 필요했죠. 포기하느냐 아니면 어떻게라도 끝까지 가보느냐. 결국 저희는 뒤쳐진 동료의 허리에 끈을 묶어 거의 끌고 가다시피 정상에 올랐습니다. 포기하기엔 거기까지 올라간 게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스스로도 전한 산행인 만큼 꼭 끝을 보고 싶었고요." 강중호 과장은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릴 만큼 처절했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그렇게 고생을 하고 얻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서로를 정말 아끼고 보살펴주는 팀워크이다.

이제는 산행에 꽤 여유가 생겼다. 하산하는 길에

근처 미술관이나 전시관도 다니며 동호회 활동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주로 가는 곳은 청계산을 올라 미술관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 코스. 적당한 높이에 주변 경관까지 좋아서 이들의 단골 코스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아직도 산 중턱쯤 올라가면 숨이 턱까지 차요. 하지만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산 정상에서 마시는 동동주 맛을 아는지?' 정말 그 맛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죠. 땀과 노력,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올라간 정상이고 그 상으로 마시는 동동주니까요."

동호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홍배 차장은 회원들과 산을 오르며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보따리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한다. 앞으로 한라산 산행을 꼭 해보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꼭 이루어내고 산을 닦은 '사니조아'로 길이 남기를 기대해 본다.

▼ 가장 힘들때 서로를 이끌어주는 의리로 뚝뚝 뚫힌 '사니조아' 멤버들

